



발신: 김호범, 세종문화회 회장

날짜: 2010년 2월 19일

제목:

매년 미국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필과 영어시조 두 부분을 포함하는 세종작문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세종문화회에서 이번에 한국 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으로 부터 “영어로 쓰는 시조” 교재 개발 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지원과 시카고 총영사관의 적극 적인 후원을 받아 미국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로 시조 쓰는 법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4월에 다음과 같이 일리노이 주립대학 영문학과와 공동으로 영어 교사들을 위한 시조 쓰기 워크샵을 시카고의 일리노이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열고, 일반인들을 위한 시조 강좌를 시카고에 있는 Harold Washington Public Library 에서 갖고 또 시조 낭독 감상회를 Andrew Bae 화랑에서 갖습니다. 미국 기성 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시조를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전파시켜 한국의 고유의 시조 문화를 미국 사회에 알리고 또 이시조가 미국 주류 문화안에 정착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4월 9일 (금) (10 am - 3 pm): 미국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위한 “영문 시조 쓰기 워크샵”
UIC Student Center, Suite#613
750 S. Halsted, Chicago

4월 10일 (토) 오전 (11 am - 1 pm): 일반인을 위한 시조 강좌 at the Chicago Public Library
Chicago Author's Room (7th floor)
The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400 S. State St. Chicago (312-948-8939)

4월 10일(토) (6-8 pm) : 시조 낭독 감상회 – “Evening with Sijo, Wine, and Arts”
Andrew Bae 화랑
300 Superior St. Chicago (312-335-8601)

4월 30일: 제 5회 세종작문경연대회 (수필/시) - 제출마감 4월 30일
응모요강은 website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에있음

자세한 내용과 배경.

미국 사회에 잘 알려 지지 않았지만 소수의 기성 시인들 사이에 인기를 갖고 있는 한국 고유의 시 형태인 시조를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세종문화회에서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영어로 쓰는 교재 개발 사업 지원금과 시카고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Harvard 대학의 한국 문학 교수이며 그대학의 한국 연구소 소장인 David McCann 교수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시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시조 쓰기 안내와 시조 쓰는법 지도를 위한 교재를 제작 합니다. David McCann 교수는 한국 문화에 심취하여, 김소월의 시들과 한국의 고전 시조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책으로 발간하였고 또한 본인이 창작한 시조들도 출판하였고 Harvard 대학에서 시조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McCann 교수는 세종 작문경연대회 준비위원이며 시조 경연대회를 위한 자문과 심사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4 월 9 일 에는 세종문화회와 일리노이 주립대학 영문학과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English Department)가 공동으로 미국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위한 시조 쓰기 워크 샵을주최합니다. Harvard 대학의 David McCann 교수가 워크샵을 주관하며, 참석하는 교사들은 일리노이 주립 대학으로부터 4 시간의 CPDU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Unit)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워크샵을 통해 영어교사들은 시조와 한국의 역사및 문화와 문학을 학생들에게 소개 하는 방법, 영어로시조 쓰기를 가르치는 수업 운영방법을 배우고 일본의 하이쿠와 한국시조의 유사점과 다른점들을 배우는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워크샵은 녹화 된후, 동영상 교재형태로 편집되어 시조 쓰기 교재에 첨부되어 미국 전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4 월 10 일(11am – 1 pm) 오전에는시카고 시립도서관과 공동으로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에서 “시의 달 (Chicago Poetry Month)” 행사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시조강좌를 가질 예정입니다.

4 월 10 일 (6-8 pm) 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Andrew Bae 화랑에서 시조 감상회가 열리며, 화랑에서 전시되는 그림을감상하고, 막길리를 시음하고, 영어 시조에 대한 McCann 교수의 설명을 듣고 전통 시조와 영어 번역시조, 또 영어로 창작된 시조들을 낭독 감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David McCann 교수와 Ellee Pai Hong (former NBC 5 News Today Anchor)와 시카고 한미 TV 의 박원정 부장이 시조 낭독을 합니다.

세종문화회는 시카고의 비영리단체로 세종 작문경연대회, 세종 음악경연대회, 세종 국제 작곡 대회등을 통해 한국의 자랑스러운문화 유산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한걸음 더나가 미국의 주류 문화의 구성 요소로서 한국의 문화가 뿌리 내려 미국의 주류문화권에 사는이들도 한국의 문화를 일상 생활에서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문화가 더욱 다양화 해지고 풍요로워 지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언어 시간에 일본의시 형식인 3 줄 17 음절의“하이쿠”를 배워 “하이쿠의 날” (Haiku day)에 최소한 한두번쯤은 일본의 “하이쿠”를 쓰고 발표 합니다. “하이쿠”는 미국 주류 문화안에 인정된 시의 형태로 자리잡아 많은 기성 시인들이 하이쿠를 쓰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조는 아직 미국에 잘 알려 지지는 않았지만, 시조를 접해본 미국 사람들은 시조가 더욱 매력적인 시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시조는 1970 년대에 여러 문헌지를 통하여 미국에 소개 되었으나, 1980 년 말과 1990 년 초에 와서야 미국의 소수의 시인들사이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David McCann 교수외에도 “The Wordshop” 의 발행인인 Larry Gross 박사는 Yahoo 웹사이트에 Sijo forum 를 운영하며, 영어로 시조쓰는 법을 가르치고,

영어 시조에 관심있는 시인들끼리 서로 시조를 쓰고 감상하고 토론하며 시조 쓰기를 장려하고 시조 쓰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California 에 게시는 미국의 시조 권위자 김운송 시조시인을 통하여 시조를 알게 된 캐나다의 Elizabeth St. Jacques 여사도 자기 나름대로 영어 시조 쓰기 안내서를 “Poetry in the Light” 웹사이트의 “Sijo in the Light” 섹션에 올려 놓고, 번역된 시조, 창작한 시조들을 올려 시조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들이 시조를 쓰는이유를 Larry Gross 박사는 Yahoo Sijo Forum, 시조 입문 #1 에서 “인간은 그 본성이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것 같다. 시의 경우에도 그와 같아 서양에서는 지난 40 년간 동양에서 쓰이는 시의 형태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증가 하는 것을 보아 왔다. 중동지역의 허잘(ghazal)과 일본의 하이쿠 (haiku), 단가 (danka), 렌가(rennga), 하이번(haibun)등이 이제 미국의 출판물에 수시로 게재되는 것을 볼 수있다. 우리 서양사람들은 우리것과 전혀 다른 동양의 고전문화를 맛 볼수있게 연결해 주는 동양의 시의 형태에 매료 되었다. 한국의 시조형태도 이와 같은 경우라 하겠다.” 라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Gross 박사는 시조를 하이쿠의 사촌이라 부르며, 시조는 중동의허잘보다 더 짧고 서정적이며 일본의 하이쿠 보다는 글자수에 더 여유가 있고 하이쿠와는 달리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것을 환영하는 시 형태이며, 시조만이 갖는 특징으로는 “시조의 독특한 형태 (주로 3 줄이며 한줄에 14 내지 15 음절로 총 44 에서 46 음절로 제한), 음악적 리듬이들어있는 요소 , 또 마지막 줄에 표현되는 극적인 변화로 종말짓는것을(surprise ending, twist) 꼽고 있으며, 시조 쓰는 것을 “fascinating challeng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cCann 교수는 “초중학교때 하이쿠 테이를 가져본 학생들은 커서 일본 소설을 접하면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도 시조 데이(Sijo Day)를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시조를 한번 써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커서 번역된 한국 소설을 접하게 될 때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다 라고 말하리라고 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에서는 해마다 개최하는 시조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그 웹사이트에 초보자를 위한 영어 시조 쓰는 법, 영어 시조의 예와 참고 문헌과 영어 시조쓰기에 관한 웹사이트들의 링크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교사들이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시조와 한국 문학을 소개하고 시조쓰기를 가르치기에는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등학교에서 시조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세종작문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를 장려하시는 교사들이 계십니다. 2008년에는 150 편의시조가 2009년에는 450 편의 시조가 응모하였습니다. 이중 90%가 타인종 학생들이었습니다. 더욱 많은 영어 교사들이 학교에서 시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 국제 교류 재단으로 부터 사업 자금을 받고 시카고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종 문화회가 한국 국제 교류 재단(Korea Foundation) 에서 자금 후원을 받아 제작하는 미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영어 시조 쓰기 교재가 미국의 청소년들 에게 시조를 더욱 널리 알려 시조의 세계화를 이루며, 한국의 좋은 문화를 미국주류 문화안에 포용하여 미국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 작문 경연대회 (수필 부문과 시조 부문) 의 작품 제출 마감일은 오는 4 월 30 일이며 경연대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시조 쓰기 워크샵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에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사 - "The new haiku? Harvard professor David McCann says America is ready for sijo" (Boston Globe 와 David McCann 교수의 인터뷰, 영문) 6/30/2009

기사 - "미학생들 영어 시조 짓기로 한국 문화체험" (서울 경제 와 Lucy Park 인터뷰, 한글) 6/29/2009

기사 - "영어 시조의 즐거움 미청소년들 반했죠" (중앙일보와 Lucy Park 인터뷰, 한글) 6/23/2009

글 - "하바드대 영어시조 낭독회 참가기" - 서울대 권영민 교수 (유심 웹사이트 글, 한글) 7/10/2009

글 - "시조 입문 #1" - 야후 시조 포럼에 가입하면 Larry Gross 박사가 첫번으로 보내는 메일 (영문)

문의 연락처:

Sejong Cultural Society
606 Forest Road
Glenview, IL 60025, USA
Lucy Park, Executive Director

웹사이트: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이메일 주소: Sejong@sejongculturalsociet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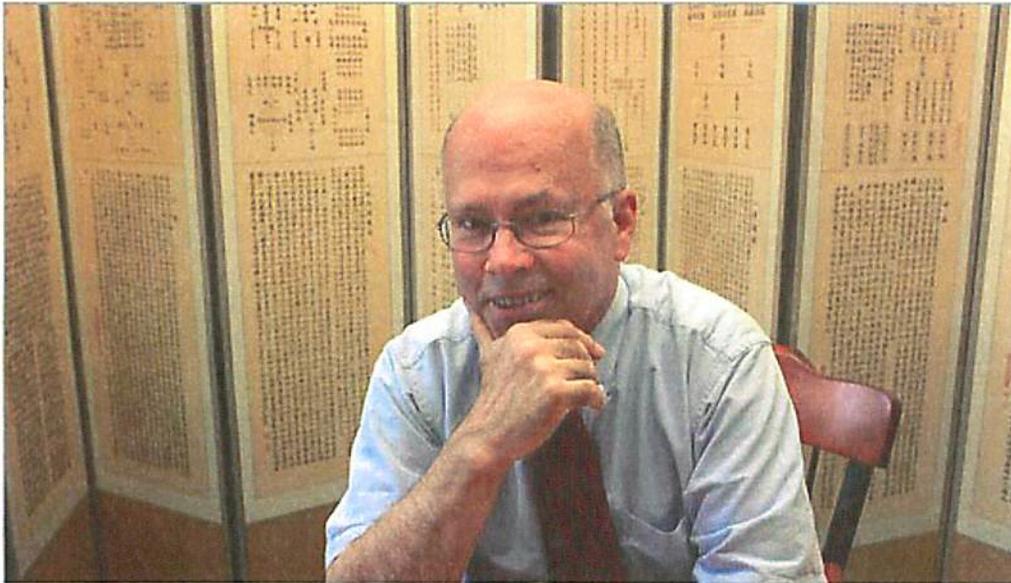
회장: 김호범 (Ho Kim)

부회장: Juliana Chyu

사무총장: Lucy Park

The new haiku?

Harvard professor David McCann says America is ready for sijo



David McCann,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at Harvard, is trying to popularize the sijo, a traditional poetic form in Korea. (David L. Ryan/Globe Staff)

By Irene Sege

Globe Staff / June 30, 2009

[Email](#) |

[Print](#) |

[Reprints](#) |

[Yahoo! Buzz](#) |

[ShareThis](#)

Text size - +

CAMBRIDGE - The class on writing Asian poetry that Professor David McCann teaches at Harvard includes units on Chinese quatrains, Korean sijo, and Japanese haiku, the last of which is so well-known that McCann's students had haiku days in middle school. Why, McCann wondered, couldn't the three-line Korean sijo that he loves enjoy the same widespread recognition as the three-line, 17-syllable haiku?



Discuss

COMMENTS (27)

RELATED

- [CONTEST Write your own sijo](#)
- [Three of David McCann's sijos](#)

With that, McCann, a poet and professor of Korean literature, embarked on a mission. He is the founder and chief marketing officer of a campaign to popularize the sijo (pronounced SHEE-jo), a traditional poem of 43 to 45 syllables whose third line contains a twist on the theme developed in the first two.

This spring McCann hosted a sijo festival at Harvard - the first anywhere, he believes, to feature both Korean and English sijo. A sijo con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ich McCann judges attracted 450 entries from two dozen states this year, up from 160

**David McCann explains
and sings sijo** (mp3)



in its 2008 inaugural year. Bo-Leaf Books just published McCann's "Urban Temple: Sijo, Twisted & Straight," one of the first anthologies of sijo written in English.

"Students who have a haiku day, when they grow up and see a Japanese novel, they'll be interested," McCann says. "There could also be a sijo day. Children might find sijo something they can try, then one day see a Korean novel translated and say, 'I can read

it.' "

The haiku whose success McCann and others seek to emulate gained notice in the decades after World War II as Americans grew curious about everything Japanese, from the tea ceremony to Zen Buddhism. "Haiku," says McCann, "got to be part of American notions of what Asian was." Jack Kerouac, who became an icon of the Beat Generation, wrote haiku.

Now, McCann posits, Korea's time has come. A so-called "Korean Wave" of exported television shows, movies, and musicians is attracting attention across Asia and beyond. "Winter Sonata" has been a TV hit around Asia, pop singer Rain has played Madison Square Garden, and Park Chan-wook's "Old Boy" won the Grand Prix at the Cannes Film Festival in 2004.

With its three lines, sijo resembles haiku, but the sijo poet has more room to develop a theme, narrative, or image before twisting and resolving it in the final line. Each line of 14 or 15 syllables consists of a string of four shorter phrases of three, four, or five syllables apiece.

"Sijo is much more flexible than haiku," says Heinz Insu Fenkl, who grew up in Korea and teaches creative writing and Asian literatur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New Paltz. "If you have 15 syllables per line, that's much more than the haiku. What it allows for is something haiku can't do, which is the formation of narrative inside the poem. You can express complicated things. At the same time, they sound very natural."

Originally meant to be sung, one of the earliest known sijo is a 14th-century verse:

The spring breeze melted snow on the hills then quickly disappeared.

I wish I could borrow it briefly to blow over my hair

And melt away the aging frost forming now about my ears.

Modern Korean poets write sijo intending them to be read in print and sometimes link sijo as stanzas in a longer poem. Kim Dae Jung, who went on to

become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in 2000 won the Nobel Peace Prize, wrote sijo while imprisoned in the 1980s.

“Sijo goes right through the spectrum of Korean culture,” says Fenkl, whose mother was born in Korea. “Even people working in the field will take a break and tap on their lunch boxes and recite sijo. When you buy old furniture, the inside of the cabinets would be papered. The paper was often sijo. In the '60s a lot of the popular tunes were expansions of sijo structures.”

McCann carries the imprimatur of Harvard, but he is not the first American to try to do for sijo what Kerouac did for haiku. In 1992 a Florida poet named Larry Gross found sijo translations in a poetry journal published in India, and in 1996 he and Canadian poet Elizabeth St. Jacques founded Sijo West, a journal that printed about six issues. In 1995 Maplebud Press published “Around the Tree of Light,” a volume of St. Jacques’s sijo written in English.

Gross, 81, a retired English professor who now hosts an online sijo site, is pleased to hear of McCann’s campaign. “That would be great,” Gross says. “That was my dream.”

McCann’s fascination with Korea began in 1966 when he joined the Peace Corps instead of the Army after graduating from Amherst College. “My plans were to go into the Rangers and get parachuted behind the front lines in Vietnam and see what happened,” recalls McCann, 64. “A classmate asked me if I ever heard of the Peace Corps. I was invited to train for the first program in Korea. The training was in Hawaii. That sounded good to me.”

Soon McCann, who studied Renaissance history in college, was teaching English at an agricultural high school in Andong. One day he noticed an unusual volume in a local bookstore. Its cover was red, a taboo color in anti-communist South Korea, and it contained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poetry. Since then McCann has translated sijo and other Korean poetry himself.

Two years ago, sitting at his favorite restaurant in Harvard Square, Charlie’s Kitchen, McCann wrote his first sijo in English on a napkin:

All through lunch, from my table

I keep an eye on your disputes,

green lobsters in the bubbling

tank by the restaurant door.

Slights, fights, bites - Whatever the cause,

make peace and flee, escape with me!

He's been writing sijo ever since for the Every Other Thursday poetry workshop, and a year ago his fellow poets started composing sijo, too. He and Fenkl plan to create an online journal for sijo in English.

"The English language begins to sort itself out in the sijo in interesting ways. There are patterns of sound that the sijo brings out in the language. The way it twists, it's almost as if I'm seeing it happen on the page," McCann says. "Because it's short and focused it gets you away from the over self-regard of some poetry. You're encouraged to be out looking at things."

Last year Fenkl, aware of McCann's new cause, suggested a school-age sijo contest to the Illinois-based Sejong Cultural Society, which was founded in 2004 to promote Korean culture. The society sent 5,000 fliers to English teachers and principals in 20 states last year; this year it sent 20,000.

"This is something Korean culture can offer to Americans," says Ho Kim, president of the society. "At the same time Korean-Americans benefit."

Sixty sophomores at Trinity High School in Manchester, N.H., studied sijo this year, and a half dozen entered the contest. In Atlanta, teachers at the Marist School taught sijo to their 12th-grade world literature classes, and all 120 students submitted poems to Sejong.

"The sijo was really fun and different. With haiku, they would have gone, 'Oh, another haiku,' " says Tracy Kaminer, a teacher at Marist. "I think sijo is an elegant form of poetry." ■

"美학생들, 영어 시조 짓기로 한국문화 체험"

美'세종문화회' 사무총장 루시 박 일리노이주립대 교수

사진 =이호재기자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미국](#)에서 일본의 하이쿠(俳句)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전통 시조(時調)는 아직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종문화회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는 [영어](#) 시조 경연대회를 통해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시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결성된 '세종문화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루시 박(한국명 박종희 · 59 · [사진](#)) 일리노이주립대 [의대](#) 교수는 29일 서울 출무로 서울경제신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미국 시카고에서 교민들이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결성한 '세종문화회'는 매년 시조와 [소필](#), 한국 음악에 걸쳐 청소년을 대상으로 콩쿠르를 개최한다. 영어로 시조를 짓는다는 게 생소하게 들렸지

만 박 교수는 영어 시조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영어 시조는 한국어의 음절에 해당하는 실러블 숫자를 맞춰 운율이 느껴지도록 한 시의 형식을 취한다"며 "일본의 하이쿠보다 복잡하지만 훨씬 더 흥미로워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시조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지난해 150여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세 배 늘어난 450여명에 달했다. 게다가 응모자 중 미국인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6월 끝난 세종 작문 경연대회에서 시조 부문 1위는 미국인 학생이 차지해 5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박 교수는 "미국 학생들이 시조를 지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체현](#)하고 있다"며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대회 수상자들과 교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세미나](#) 등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는 시조 경연대회뿐 아니라 콩쿠르 참가자들이 한국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는 '세종 음악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시카고에는 중국 교민을 중심으로 '차이니스 파인 아츠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경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보고 음악에 관심이 높은 한인 교포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음악 콩쿠르를 연 게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한인 교포 200여명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탓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밝힌 박 교수는 "음악회와 작문 경연대회에 매년 4만달러의 돈이 필요한데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미술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해 모국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sejongculturalsociety.org)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 www.economy.hankooki.com](http://www.economy.hankooki.com)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of [Hankooki.com](http://www.hankooki.com) ([서울 경제](#)) Korea

서울 경제 ([economy.hankooki.com](http://www.economy.hankooki.com)) [Article June 29, 2009](#)

서울경제

Joins

“영어 시조의 즐거움 미 청소년들 반했죠” [중앙일보]

미국 시조대회 여는 루시 박

“A single sole was lost today, deep in the river Yalu(오늘 신발 밑창 하나를 잃어버렸네, 압록강 깊이),/Thrashing, twisting, torn to shreds with color quickly fading(몸부림치고, 뒤틀리고, 색깔이 닳아 없어지도록 갈가리 찢기며),/On the bridge a small boy laughs, holding out his empty shoe(다리 위에서 작은 소년 하나 웃고 있네, 밑창 없는 신을 든 채).”



루시 박 세종문화회 회장은 “미국 청소년들이 영어시조를 흥미있어 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몬트 하이스쿨 1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크리지 클로저가 쓴 영어시조다. 영어로 시조를 쓴다고? 사실이다. 영어시조가 미국 청소년들에게 인기다. 영어시조는 한국어의 음절(音節)에 해당하는 ‘syllable(실러블)’ 숫자를 맞춰 운율이 느껴지도록 한 시 형식이다. 미국 시카고 교민들이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4년 결성한 모임인 ‘세종문화회’는 지난해부터 교포 학생은 물론 미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시조 대회’를 열고 있다. 이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루시 박(한국명 박종희) 일리노이주립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150명 정도이던 응모자가 올해 450명가량으로 크게 늘었다”고 18일 말했다. 또 응모자 중 교포 학생 아닌 미국인 학생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90% 수준으로 높아졌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박 교수는 “‘세종문화회’가 백일장을 홍보하는 우편물 발송을 크게 늘린 덕도 있지만 몇몇 중·고등학교의 문학 담당 교사들이 재미있다는 메일을 보내올 정도로 영어시조 자체의 매력도 작용해 응모자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인용한 영어시조는 올해 ‘영어시조대회’ 1등 작품이다. 신발 밑창을 잃어버린 속상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짓는 소년의 천진함에서 동양화 같은 고요함이 느껴진다. ‘압록강(river Yalu)’에 주목하면 남북한의 분단 현실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시조의 의미가 확장된다.

박 교수는 “일본의 하이쿠는 상당수 미국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문학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접한다”며 “시조도 그렇게 대중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는 박 교수의 제안으로 결성됐다. 교포들이 십시일반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이 한국 음악을 연주도록 하는 ‘세종음악경연대회’, 수필·시조를 포함하는 ‘세종작문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신준봉 기자, 사진=김성룡기자

[Click for Source at Joins.com](#)

중앙일보 (Joins.com) Article June 23, 2009

Courtesy of [중앙일보](#) Korea

| [Home](#) | [News Articles Index Page](#) |

하버드대 영어시조 낭독회 참가기 / 권영민

시조의 무한한 생명력을 보다

[39호] 2009년 07월 10일 (금)

권영민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하버드-만해 시조 페스티벌 Harvard-Manhae Sijo Festival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는 한국 시조문학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2009 만해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와 서울대 한국어문연구소가 주관한 영어시조 낭독회였다. 이 행사에는 하버드대의 데이비드 맥캔 교수를 비롯하여 영어로 시조를 쓰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인 교수, 학생들과 만해마을 운영위원장인 이상국 시인, 홍성란 시조시인과 시조창을 연주한 이유경 씨 등이 참가했다. 서울대 국문과 권영민 교수의 참가기를 통해 이 행사의 의미를 살펴본다.



권영민

서울대 국문과 교수

지난 5월 15~16일 미국 하버드대의 바커센터 중앙홀에서 '하버드 만해 시조 페스티벌(Harvard Manhae Sijo Festival)'이란 아주 이색적인 축제가 열렸다.

한국의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 행사는 한국 고유의 시조가 세계화를 향한 야심 찬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 하버드대의 데이비드 맥캔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영어시조(English Sijo)' 운동의 성과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영어시조'는 맥캔 교수가 만들어낸 말이다.

맥캔 교수가 '영어시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어하이쿠' 때문이다.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은 영어 시간에 일본의 전통 시가 형태인 '하이쿠(俳句)'의 음절 수에 맞춰 짧은 글짓기 연습을 많이 한다. 그것을 '영어하이쿠(English Haiku)'라고 부른다. 일본은 일찍부터 영어로 하이쿠 짓는 법을 널리 소개했다.

그 결과 '영어하이쿠'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영어권에 정착했다. 맥캔 교수는 '영어시조' 짓기를 문학교육 현장에서 확대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부터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시조들을 모아 《도심의 절간(Urban Temple)》이라는 영어시조집을 최근 발간했으며, 이러한 창작 경험에 근거해 '영어시조 작법'도 고안했다. 그리고 이를 하버드대 학생을 상대로 강의하고 뉴잉글랜드 시인 그룹의 시인들에게도 소개했다. 보스턴 근교 고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이 새로운 영어시조 창작법을 가르쳤다.

이번 축제에선 맥캔 교수의 '영어시조' 짓기 운동에 참여했던 미국인 교수·시인·학생이 영어로 쓴 시조를 몇 편씩 낭송했다. 이들은 시조의 시적 형식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긴장을 영어로 살려낸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면서 3행시로서 '영어시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했다.

축제 현장에서 이상국 시인은 시조시인 조오현의 〈아득한 성자〉를 우리말로 낭송했고 홍성란 시인은 자작시조 〈명자꽃〉을 소개했다. 맥켄 교수는 “천 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라는 〈아득한 성자〉의 마지막 연을 “You could live a thousand years, true./ Holy man./ Far distant, a swarm of mayflies”라고 영어로 낭송했다.

정악(正樂) 전공자인 이유경 씨의 가곡창과 시조창 공연이 이어지면서 음악과 결합됐던 전통시조의 아름다운 울조를 함께 감상할 수 있었다. 필자는 최남선의 시조부흥 운동을 통해 한국 전통시조가 현대시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맥켄 교수는 현대적 감각을 시적으로 구현해 낸 시조의 미학을 가람 이병기의 시조를 통해서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영어시조’의 확대는 한국문화의 세계화에서 매우 주목되는 실천적 과제이다. ‘영어시조’는 번역을 통해서 한국문학을 접했던 외국 독자들이 직접 한국문학의 형식과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의 뿌리에 해당하는 시조가 영어를 통해서 그 문학적 생명력을 새롭게 인정받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버드대 베이커센터 톰슨룸에서 열린 시조 낭독회



오현스님의 시조 <아득한 성자>를 낭송하는 맥캔교수.



영어시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참석자들.

WELCOME TO SIJO

Sijoforum Primer #1:

An introduction for those new to sijo, a refresher for others.

**See the house fall at our feet, faithful timbers come crashing down;
Those with our life in their hands join the termites, gnaw at beams.
Till the dawn, hold me while we sleep -- in the cold, that is enough.**

(TOP #14 May 1995; Canadian Writer's Journal, Fall 1995)

It seems to be the nature of mankind continually to try something new. That is just as true in poetry as it is in other areas. During the past forty years or so we have shown increasing interest in Asian verse patterns. The Middle Eastern ghazal has its devoted followers in the West, and Japanese forms like haiku, tanka, renga and haibun are now commonly found in small press and commercial poetry periodicals. Journey through the Internet and you will see these forms blossoming everywhere. We Westerners have fallen in love with Asian patterns, patterns that connect us tenuously with ancient cultures so different from our own.

So it is with the SIJO (see-szo or she-szo, with the J pronounced as the French pronounce Jacques). The roots of this lyrical Korean cousin of haiku and tanka stretch back well over 1000 years. It has been the most popular form of lyric verse in Korea for over 500 years, sung equally by Confucian scholars, members of the royal court and common folk.

I say sung because the sijo is, at heart, a song. It is for the Koreans what the ballad is for Western Europeans. Originally, that word referred only to the music. The lyric was called tan-ga, an ancient verse based on still earlier Chinese patterns which also influenced Japanese poetry. Eventually, the term sijo (which is both singular and plural) came to be applied to both words and music.

Sijo is traditionally composed in three lines of 14-16 syllables each, between 44-46 total. A pause breaks each line approximately in the middle, somewhat like a caesura, as illustrated in this verse by Yun Son-do (1587 - 1671), one of Korea's most revered poets:

**You ask how many friends I have? Water and stone, bamboo and pine.
The moon rising over the eastern hill is a joyful comrade.
Besides these five companions, what other pleasure should I ask?**

Each half-line contains 6-9 syllables; the last half of the final line may be shorter than the rest, but should contain no fewer than 5 syllables. This natural mid-line break comes in handy, since printing restrictions often cause Western sijo to be divided and printed in 6 lines rather than 3. Indeed, some translators and poets have adopted this technique in their writing, so most editors accept either format.

The sijo may tell a story (as the ballad does), examine an idea (as the sonnet does), or express an emotion (as the lyric does). Whatever the purpose may be, the structure is the same: line 1 of the 3-line pattern introduces a situation or problem; line 2 develops or "turns" the idea in a different direction; and line 3 provides climax and closure. Think of the traditional 3-part structure of a narrative (conflict, complication, climax) or the 3-part division of the sonnet, and you'll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Though the ancients seldom titled their sijo, some modern writers, such as Elizabeth St Jacques in the following verse, frequently do:

EVEN NOW

**just us two in the photograph
his arm around my thin shoulder
That strong limb I then leaned against
would break so many falls
We stood like this but only once
but his strength holds me still**

[Elizabeth St Jacques, *Around the Tree of Light* (1995)]

To achieve the rolling, musical quality so characteristic of sijo, each half-line is further divided into two parts averaging 3-5 syllables each. Look at Elizabeth's "Even Now." Notice that each line usually divides into 2 phrases or word groups ("just us two / in the photograph"). Some people find parallels between this rhythm and that of Bible verses, and others find a likeness to sprung rhythm popularized by Gerard Manley Hopkins. Regular meter is not vital to sijo, but that musical quality is. Here is Yun Son-do once more, with a verse from his masterpiece, "The Fisherman's Calendar":

**When autumn arrives on the river, all the fish grow fatter.
We savor unnumbered hours swept along by gentle currents.
Man's dusty world fades away, doubling my joy with distance.**

Like haiku, sijo usually displays a strong foundation in nature, but, unlike that genre, it frequently employs metaphors, puns, allusions and other word play. And it loves to play with sounds. The first word (or two) of the final line is very important. It provides a "twist": a surprise of meaning, sound, tone or other device, much as the beginning of a final sestet does in the sonnet or the final line does in a haiku. That final sijo line is frequently lyrical, subjective or personal, and may very well supply a profound, witty, ironic, humorous or proverbial twist.

Remember the three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 sijo unique -- its basic structure, musical/rhythmic elements, and the twist. It is shorter and more lyrical than the ghazal. It is more roomy than the haiku, and it welcomes feelings and emotions which haiku either discourage or disguise. It should please lovers of ballads, sonnets and lyrics, and the downplay of regular meter and rhyme should appeal to writers of free verse. In short, it's a fascinating challenge. Let us see your latest one.

**Carefully I lifted it from the branch, an empty cocoon,
took it home and mounted it center stage on the mantel.
Hear it speak? What does it say of living, what of the dead?**

(Parnassus, Winter 1996)

Text and adaptations by Larry Gross unless noted otherwise.

From: Larry Gross

Original Publication Date: Thu Nov 30, 2000, 8:03am

Subject: Sijo Primer #1

<http://www.egroups.com/message/sijoforum/15>

(Printed here with slight revisions)